

##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

한 성 지 · 김 문 속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오늘날 니트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급화되고, 젊고 감각있는 니트웨어의 소비자층이 형성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븐과의 코디네이션이나 구색개념으로만 취급되어왔던 니트웨어가 독립된 품목으로 자리를 굳히며 고부가가치의 패션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니트산업은 60년대부터 섬유 분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제조공정상 다품종 소량생산이 용이한 니트 본래의 특성을 무시한 채 중저가 대량생산체제를 지향하면서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되어가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고감도의 디자인력을 구비한 해외유명브랜드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류학 분야에서도 니트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니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니트웨어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직조한 샘플과 해외패션잡지를 통해서 니트의 조직과 특성 및 니트웨어의 표현기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니트산업이 니트 고유의 독특한 상품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니트의 기본조직은 크게 위편(weft knit)과 경편(warp knit)으로 나뉘며, 위편은 크게 평편(plain), 고무편(rib), 필편(purl) 조직으로, 경편은 덴비(denbigh), 코드(cord), 아틀라스(atlas) 조직으로 구분된다. 니트의 패턴디자인은 크게 무지패턴과 선염패턴으로 구분되며, 무지패턴은 릴리프(relief), 레이스(lacy), 케이블(cable) 패턴으로, 선염패턴은 자카드(jacquard), 인타르시아(intarsia), 스트라이프(stripe) 패턴으로 구분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니트웨어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기법으로는 시퀀(sequin), 비즈(bead), 자수(embroidery), 라인스톤(rhinestone), 아플리케(appliqué), 인레이(inlay), 레이스(lace), 리본(ribbon), 패치워크(patchwork), 오픈워크(openwork), 슬래쉬(slash)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기법의 활용은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니트웨어의 개발을 통한 국내 니트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